

우리 모임에선

BBS통신원 차량봉사

불교방송통신원봉사회(회장 이영균)는 28일 오후 1시부터 동대문구 전동동 매봉산 그린공원에서 열리는 지체장애자 동대문지부 축제에서 차량봉사 활동을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방송통신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해 지체장애자들의 손발이 돼 행사장을 출입을 돕고 체육대회 진행을 지원한다. 이영균 011-350-8528

붓다클럽 '도민안녕' 법회

붓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백태수)은 15일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기념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5월19일 오후 7시 제주 칼호텔에서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오기십씨를 비롯한 15명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강서보 변호사와 정대권 변호사를 상담고문에 위촉했다. (064)48-0108

스카우트지도자운동법회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4일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8층 회의실에서 운동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는 연재홍씨가 <초발심자경문> <자경문>에 대해 운동 강의를 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는 최근 단행본 <대전화상주심경>을 법보시용으로 발간해 선보이고 있다. (02)2292-8502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전문지식 보시합니다

법률·세무·건강·교육·교리상담코너 신설 5월 10일 개통... 전문직 불자 10명 상담

직장직능 전문직 불자들이 앓아 누리는 보시에 나선다.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5월10일 온라인 상에 개통하는 교리, 교육, 세무, 의학, 법률 등 5개 상담코너에 해당 직장직능 신원단체 전문직 불자 10명이 직접 상담요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자비나눔 운동'을 벌인다. 질의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 사찰과 복지관에서 해 오던 1개분야 상담에 한하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투입돼 상담 종합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어서 눈길을 끈다.

교리상담은 조계종 포교원과 이제 열 법사(유마선원장)가, 건강상담은 이근후 박사(이화여대 부속병원 신

경과), 이만성 원장(영재한의원)이 각각 전문 상담요원으로 나서 불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세무와 법률, 교육은 한국세무사불자회와 수원지역법조인불자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상담한다. 김태경 세무사(김태경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 생활활동을 해 오며 나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것은 아닌 부끄러웠는데 가진 지식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일이다"며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했다.

부다피아 상담코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니 발길이 무겁고, 법적절차를 몰라 분의아니지 법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불자나 자녀가



◇부다피아 팀원들이 5월10일 상담코너 개통을 앞두고 시범운영 하고 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고민하고 있는 부모 등 어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상담문의는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상담 코너에 직접 물어오든지 팩스(02-737-0697~8)로 하면 된다. 상담내

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부다피아는 향후 주요 상담내용들을 모아 교리, 교육, 세무, 의학, 법률 상식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psdo@buddhapia.com>

직능단체 불자들도 봉축준비

금강메아리산악회

수해장병 원훈 천도법회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산역서 첫 시 낭송회

BBS 통신원봉사회

염주·목탁달아주기 운동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직능 신원단체들이 봉축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운)는 5월2일 철원 비룡부대 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군장병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지난해 수해로 운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원훈을 달래는 천도재를 겸해 봉행된다. 금강메아리는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에게 염주를 봉축선물로 전달할 계획이다.

금강메아리는 법회에 이어 도피안사, 철원 노동당사, 월정리 역사 및 통일전망대, 청원사 등을 순례한다. 출발은 5월2일 오전 7시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에서 한다. (02)772-9517

또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최낙현)는 5월15일 오후 6시 부산역 문화관에서 88년 창립 이래 첫 봉축행사로 시낭송회를 연다. 시낭송회에서는 능지스님(천통사 주지)의 축사 '부처님 탄탄'을 비롯해 문인 20여명의 시작(詩作)이 발표된다. (051)441-6515

불교방송통신원봉사회는 5월18일 서교동 청기와주유소 앞에서 '염주와 목탁 달아주기' 운동을 펼친다. 50여명의 통신원들이 택시와 버스, 자가용 등 3천여 대의 차량에 염주와 장식용 목탁을 달아주며 부처님 탄생의 기쁨을 전할 계획이다. 이영균 011-350-8528

유니텔불교공동회(대표이사 정경자)는 석탄일에 맞춰 PC통신 불자동호인을 위한 법요집 <부처님 나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경자 018-216-2843



고산스님-WCC 라이저 총무 환담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3일 콘라드 라이저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며 종교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고산스님은 콘라드 총무의 WCC 애크메니칼센터(제네바) 초청에 대해 10월 로마 교황청 방문 길에 들리겠다고 약속했다.



삼론종 한·중 친선교류 합의

삼론종(총무원장 해공)은 6일 중국 남경 서하사에서 한중 삼론종 교류차 석자진 서하사 주지, 유국옥 종교국부장, 최대년 부국장 등을 만나 정례적인 친선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삼론종에서는 석봉 부총정, 해공 총무원장, 해광 재정원장, 노회재 문화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삼론종은 23일 간 부회의를 열고 중국 삼론종의 친선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수증스님 연꽃사진 첫 전시회

수증스님(금화사 주지) '一池荷葉修蓮展'이 21일 공평아트센터에서 개막했다. 작품생활 10여 년 만에 갖는 첫 전시회인 이날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을 비롯 정덕 영안스님 등 비구니계 중진스님과 문화예술인 177, 允山 등 2백여 명이 축하했다. 석도훈 미술평론가는 축사를 통해 "수증자의 눈으로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의 의미를 더 많이 표현해 사회를 맑히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산불교청년회 창립 1돌 법회

동산불교청년회(회장 임순기)는 22일 동산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경전을 공부하는 청년회'의식을 실천하는 청년회'를 표방하며 지난해 4월23일 창립한 동산불교청년회는 동산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주축으로 기초교리, 한글의식 실수, 영불정진 등 3개 과제를 실천하며 신명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무진장스님(조계종전 포교원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22개 구청 불자회 창립

공무원 신행회 산파 조정봉씨

20여 년 동안 서울시내 22개 구청 공무원들의 불자회 창립 산파역을 맡아 온 서울시청신행회 지도법사 조정봉씨(50, 서울시청 노숙자대책담당관 팀장).

83년 동작구청에 정부기관 최초로 심월회를 탄생시킨 이후 87년 불심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내 구청 전체불자모임을 결성했다. 또 91년 관악구청 불심회, 93년 서울시청심월회를 결성하고 4천여명의 서울시 불자공무원들을 결집시켰다. 때문에 조씨는 시구청 공무원불자들 사이에서 신행회 대부로 불리고 있다.

어느 종교라고 할 것 없이 정부기관 내에 신원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때에 감히(?) 불자회를 출범시킨 조씨

박봉 털어 불서 보시 자비 '공직자상' 세워

는 슬하에 공직생활을 위협받는 우려 국절을 겪어야 했다. 타종교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시기를 극복해야 했고,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는 '암행반'의 미행도 견뎌내야 했다.

"행정기관 내 불자회는 불교의 사회화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조씨는 "공무원신행회는 불자로서 자비를 바탕으로 대민봉사를 실현해 밝은 공직자상을 정립, 국가와 불교발전의 촉매제가 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월회 창립 당시부터 줄곧 회장을 맡아온 조씨



말아보는 동안 법회 때마다 국내에서 재일가는 법사를 초청해 초심자들의 환희심을 일으켰고, 일급을 보태 기초교리서 <보살도>를 비롯 후대용 법회 지침서 <불자수첩>, <산가귀감> 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직장불자회 활성화에 혼신을 바쳐 온 조씨. 조씨는 올해 공무원을 불자와 육성하고 퇴직 공무원 불자들의 포교와 복지사업장이 될 '사회복지법인 공무원불자회'관 건립을 추진, 공무원 사회에 또다시 '불교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금강경독송회 호국영령 천도재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용)는 18일 경주 서천에서 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금강경 독송회 김영희씨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천도·해탈하도록 해 국가 장래가 밝아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면서 "임진왜란 당시 창의(의병발기)의 진원지이며 회맹(모여 맹세함)의 발원지였던 경주에서 법회를 봉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3년 낙화암 삼천궁녀 천도법회 봉행 이후 8번째 마련된 이날 법회는 금강경 독송 및 정진, 김재용 지도법사의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포항법당 (0562)61-2231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낙성식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5월 3일 ~ 5월 21일)

- 낙 성 식 ▶ 일시: 5월 3일 오전 9시 30분
① 큰스님 법문(3일~15일): 청화스님, 철웅스님, 성파스님, 탁상종스님, 자광스님, 목탁스님, 박완일교수
② 연예인 공연(10일~15일): 최주봉, 현철, 오은주, 남상수씨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 기간: 5월 10일~5월 21일
- 신도증 즉석 발급 행사 ▶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의 협조로, 매표사찰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신도증을 즉석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기간: 5월 10일~5월 15일
- 낙성식 기념 현혈행사 및 경로잔치 ▶ 기간: 현혈행사 5월 7일
경로잔치 5월 8일 오전 11시
- 경전특강 ▶ 내용: 육조전경 - 자광스님(문경 김용사 주지)
금강경 - 박삼종스님(교도소 대법사)
▶ 기간: 5월 24일~8월
- 연극공연 ▶ 제목: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 기간: 5월 17일~19일
- 문화센터 개관 ▶ 개관일: 5월 10일
강좌: 사찰전통요리, 기계조 및 활공, 생활도자기, 국악, 수저침, 한글교실, 병의 건강예방 치병법, 어린이 청소년·청년회 사물놀이, 선물포장, 관음팔호나, 뮤지컬, 차명스쿨, 한국무용, 꽃꽂이, 오색한지공예, 전통다도, 불화그리기
- 교계 최초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 ▶ http://www.cyverbuddha.or.kr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053-474-8228) (영대네거리 남쪽길 20m 높은 단청 건물)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일끔...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생분이 신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파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은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저는 20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기미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학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제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질혈)에 찌는 것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해당되는 증상(이)하신가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사이다
 7. 우울증이 자주 느끼는 편이다
 8. 생리기간이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뒷덜이 아프고 타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들린다
 12.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